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782
----------	-------

발의연월일 : 2023. 8. 11.

발 의 자 : 홍익표 · 전재수 · 이장섭
신동근 · 신정훈 · 박홍근
홍성국 · 이상헌 · 조오섭
이병훈 · 이원욱 · 김영배
임종성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를 제외하고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얼굴 공개 시 사용되는 피의자의 신분증 사진 등이 피의자의 현재 모습과 달라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때에는 수사과정에서 촬영한 피의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피의자의 얼굴 식별 방안을 구체화하고,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

공개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절차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관련 절차의 안정적인 집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안 제8조의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개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개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얼굴을 공개하는 때에는 수사과정에서 촬영한 피의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사가 개시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u>공개할</u> 수 있다.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 ----- ----- -----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개할</u> -----.
1. ~ 4. (생략) <u><신설></u>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얼굴을 공개하는 때에는 <u>수사과정에서 촬영한 피의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공개할 수 있다.</u>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